

# '문제는 금리' 윤석헌號 은행 정조준

윤 원장, 임원회의서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비합리적 사례 발견" 지적  
금감원, 곧 검사결과 발표... TF 통해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개선  
'고금리 영업' 저축은행은 업체명 공개 방침... NIM 공개도 검토 중

출발 한달차를 맞이한 윤석헌(號)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저축은행업권을 향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다. 공통적으로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지적하며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윤 원장은 12일 임원회의를 통해 은행권의 금리산정체계를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향후 금감원은 은행권 금리산출내역에 대한 정보제공과 금리공시 등 강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은행권의 금리산

정체계 적정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점검 결과 가산금리를 인허할 요인이 생겼음에도 수년간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산출근거도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한 사례 등이 나타났다.

가산금리는 인건비 등 업무원가와 위험프리미엄, 마진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은행이 저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 가산금리의 산정기준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이 이번 검사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가 '대출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대한 개선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모범규준에는 은행권의 금리산정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가산금리 항목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가 열거가 돼 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업권의 금리에도 본격적으로 손을 댈다. 금감원은 늦어도 다음달까진 지나치게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들의 실제 업체명을 공개할 계획이다. 역시 소비자들

에게 대출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해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그간 저축은행 업계는 대출 원가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금리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항변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일부 업체들의 순이자마진(NIM)을 공개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대손비용이 계산된 NIM까지 공개하게 되면 업계의 양변이 과연 합당한 설명인지 소비자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대출상품은 공급자(은행)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이 있어 우위에 있는 공급자가 일반적으로 결정하면 소비자가 그를 수용하는 구조"라며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은 12일 농협상호금융 경영지원본부 임직원과 함께 원주군 고산면을 찾아 양파 수확 일손 돕기를 진행했다.

## 농협상호금융, 완주 양파농가 일손 돕기

시세하락 · 일손부족 농업인 지원 사격

전북농협은 12일 농협상호금융 경영지원본부 임직원과 함께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양파 주산지인 원주군 고산면을 찾아 양파 수확 일손 돕기를 진행했다.

이날 일손 돕기는 최근 공급과잉에 따른 산지 시세하락 및 수확철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재배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소성모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를 비롯한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 김장근 농협은행 전북본부장, 홍종기 전주완주 시군지부장, 국영석 고산농협 조합장 등 임직원 6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농업

인들의 노고를 몸소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양파 농가를 운영하는 고산면 국동선(63)씨는 "일손이 부족한 데다 고온으로 잎 마름 현상까지 겹쳐 힘들었는데 멀리 서울에서 한달음에 달려와 손을 빌려줘 너무도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소성모 대표이사는 "일손 돕기를 통해 농업인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돼 너무 뿌듯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업을 만들기 위해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더욱 예의주시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북농기원, 재배 매뉴얼 개발 현장 보급

전북도농업기술원은 지역 작목을 고품질 유기농산물로 육성하기 위해 각도 농업기술원과 협업을 통한 종합관리기술 현장실증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재배 매뉴얼을 개발,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환경인증(유기·무농약) 재배면적은 2012년을 정점으로 부실인증 방지를 위한 인종관리 강화 및 저농약 인증 폐지 등으로 점차 하락하였으나 4년 만에 소폭 증가하고 있다.

최근 소비트렌드와 농식품의 안전성과 건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친환경농산물 판매장과 매출액도 꾸준히 늘고 있다.

그동안 전북도농업기술원은 유기농업 확산을 위해 토양관리, 병해충방제, 잡초 등 단위기술 개발에 힘써왔으며, 최근 현장실용화 기술에 대한 요구 증가에 맞춰 현재는 작물별 단위기술을 패키지로, 현장실증을 통한 종합관리기술을 확립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패키지로 유기농 종합관리기술은 전북의 대표작물에 적용하고 현장실증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기

농업 확산의 저변을 마련할 수 있는 핵심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농업기술원은 전북에서 지역 특산물로 육성중인 인삼을 우선 선정, 유기농 인삼재배 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애로기술을 파악하기 위해 재배농가의 영농실태 조사와 우리원에서 개발한 인삼 비닐하우스 재배 및 청백색 전용필름을 적용한 방법을 활용, 현장실증 연구를 하고 있다.

이울러 현장실증 연구는 지역 여건에 적합하고 농업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토양·양분, 병해충, 유기농업자재 선발 등 종합생산기술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기농 인삼 종합관리기술 현장실증 연구과제가 마무리되면 유기농업으로 안전하게 생산이 가능한 재배매뉴얼을 제작 보급, 기존 일반농산물과 차별화되어 재배를 받는 유기농산물 생산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유기농업을 실천함으로써 환경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적극 홍보, 소비증대를 이끌어내 전북 친환경농업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국민 건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우병희 기자

## 세계 최대 게임쇼 'E3' 서 삼성 QLED TV 인기

MS 엑스박스 전시장에 QLED TV 게임 체험공간 마련  
QLED TV 전 라인업에 AMD '라데온 프리싱크' 도입

세계 최대 게임쇼 'E3(Electronic Entertainment Expo)'에서 삼성전자의 대형 QLED TV가 전 세계 게이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삼성전자는 12~14일(현지시간) 3일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E3 2018'에 참가,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Xbox)의 메인 전시장에 75형 QLED TV 10대로 체험공간을 마련했다.

E3은 400여개 게임·엔터테인먼트 업체가 참여해 신작 게임과 기기들을 대거 공개하는 전시회로, 비디오게임 분야의 3대 게임쇼로 불린다.

삼성 QLED TV는 사용자가 게임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게임 모드로 전환해 주고, 0.015초에 불과한 입력 지연으로 최고의 게임 환경을 제공한다.

또 컬러볼륨 100%와 HDR 2000의 밝기 등 초대형 QLED TV의 차별화된 화질로 게임 속의 빠른 그래픽을 그대로 재현, 차원이 다른 몰입감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최근 AMD와의 협업을 통해 2018년형 QLED TV 전 라인업에 업계 최초로 '라데온 프리싱크(Radeon FreeSync™)' 기능을 도입했다. 라데온 프리싱크는 고해상도 게임에서도 끊김 현상 없이 부드러운 영상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현재 대부분의 모니터에서 지원될만큼 게임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손꼽힌다.

삼성전자 추경석 전무는 "게임에도 강한 TV' 라는 공식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QLED TV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무역협회, "북미정상회담 환영"

"회담 후 후속 노력 중요... 국제사회 대북제재 해제돼야"

"동북아 지역 항구적 평화공존 · 공동번영 계기 희망"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해제돼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남북 경제교류의

길이 열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오는 회담을 필두로 이어질 후속 노력들을 통해 비핵화를 위한 복잡한 매듭들이 성공적으로 풀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역협회는 "무역협계를 대신해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개최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크게 환영

한다"며 "미래지향적 북미관계 형성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항구적 평화공존 · 공동번영을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울러 "남북 교역과 북한의 대외무역이 함께 성장해 한반도가 세계무역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현대차, 국내매출 줄고 해외매출 늘었다

국내매출비중 44.2% → 39.5%... "환율 악영향"  
해외매출비중 55.8% → 60.5%... "고가차량 ↑"

현대자동차의 국내 매출은 줄어들고 해외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감원 전자공시와 CEO스코어 등에 따르면 현대차의 연간 국내 매출은 2015년 40조6674억원에서 2016년 38조823억원, 2017년 38조827억원으로 3년새 2조6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전체 매출에서 국내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5년 44.2%에서 2016년 40.7%, 2017년 39.5%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해외매출은 2015년 51조2913억원에서 2016년 55조5668억원, 2017년 58조2933억원으로 3년새 7조원 이상 증가했다.

해외 매출 비중 역시 2015년 55.8%에서 2016년 59.3%, 2017년 60.5%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미주와 유럽, 아시아 등의 해외매출이 모두 증가했다.

미주 매출은 2015년 29조1276억원에서 지난해 30조8044억원으로 증가했고, 유럽 매출은 같은 기간 13조174억원에서 16조2504억원으로 늘었다. 아시아 매출 역시 2015년 7조884억원에서 지난해 8조1934억원으로 증가했다.

국내 매출이 줄었지만 해외 매출이 증가하면서 현대차의 전체 매출은 2015년 91조9587억원에서 지난해 96조3761억원으로 증가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해외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제품 믹스 때문"이라며 "과거 해외부문 매출이 소형차 위주였다면 점차 중대형차가 늘어나고 있어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